

##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 - 특성용어를 통한 적절성과 호오도 분석을 중심으로 -

권정만(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 국문초록

이미지의 적용 수준이 한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특성용어를 통해 ‘불교이미지(Buddhism Image)’라고 도출 명명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명명작업으로 인한 불교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교이미지에 관한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도출은 물론 설문자 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기에 이미지관련 선행연구, 특히 조직(기업)이미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 등을 차용하여, 특성용어를 통한 이미지 구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불교이미지 연구에 적용시켜, 불교 인식 수준에서의 보고서 및 사회조사 등을 통해 불교의 특성용어 등을 파악 및 검증, 도출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해석을 통한 시사점을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불교의 인식을 파악함은 물론, 이미지 관리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불교이미지, 불교의 특성용어, 요인분석



## I. 서론

최근 이미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영차원의 판매전략에서부터 브랜드이미지 개선전략 및 관리까지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적용 수준 및 범위에 따른 기업이미지, 조직이미지, 정책브랜드이미지, 국가이미지 등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확장의 추세는 종교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비교종교학적 차원에서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 파악은 물론, 특정 종교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sup>1)</sup>

이러한 연구의 근본적인 이유는 특정 종교의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인 바, 특정 종교에 관한 이미지는 일반 사람들의 특정 종교에 대한 수용여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지 때문에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기도 하고, 더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실제 특정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질적 수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반면, 본질적인 면에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쁜 이미지가 생성될 때 대중에게 심각한 외면을 당하게 될 수 있다.

1) 특히, 기독교 분야가 활발하며, 이를 통한 교세확장 및 이미지관리 전략등을 고려하고 있다.

불교에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불교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sup>2)</sup> 이미지의 적용 수준이 한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불교이미지(Buddhism Image)’라고 명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명명 작업으로 인한 불교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교이미지에 관한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도출은 물론 설문자 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기에 이미지 관련 선행연구, 특히 조직(기업)이미지의 연구방법 및 절차 등을 차용하여, 특성용어를 통한 이미지 구성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불교이미지 연구에 적용시켜, 불교 인식 수준에서의 보고서 및 사회조사 등을 통해 불교의 특성용어 등을 파악 및 검증, 도출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전술한 1차적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더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해석을 통한 시사점을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불교의 인식을 파악함은 물론, 이미지 관리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윤원철(2007)은 실제로 사람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 해야 한다. 즉, 불교교리보다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실제 모습으로서 만들어지는 불교를 들여다보아야함을 주장한바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미지의 의의

이미지의 사전적 어원에 따른 이미지의 개념적 정의<sup>3)</sup>를 차치하고서도,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의미는 인지처리과정상에서 어떤 물체, 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이며, 우리는 이를 인지처리과정상에서 형상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인식한다. 또한 부가적으로 이미지에 가치를 부여하여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라는 호오(好惡)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이미지는 언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용어 및 단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동사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아름답다’, ‘따뜻하다’, ‘깨끗하다’, ‘부드럽다’, ‘활동적이다’, ‘추하다’, ‘차갑다’, ‘더럽다’, ‘딱딱하다’, ‘정적이다’ 와 같이 표현되기도 하며, 이러한 특성단어들은 인지과정을 통해 처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미지는 언어적 자체의 모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지처리과정에서의 모호성 및 애매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언어적 자체의 모호성은 우리의 인지 및 인식과정상에서의 모호성과 애매성의 문제로 나타나며, 인지 및 인식처리과정에서의 모호성은 개별적 인지처리과정으로 인한 모호성으로 다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지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나 개념적 수준에서의 파악들이 있어 왔으나, 상술한 이유로 인해 모호하며, 다양하게

3) 이미지(image)의 어원적 정의는 닮음(resemblance), 즉 실체를 닮은 꼴로 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본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하며, 환영, 꿈, 유령의 뜻으로도 쓰이며, 모방하다(to imitate)라는 뜻을 지니기도 하며, 상, 영상, 심상등을 나타내기도 한다(유우열, 2006:13~14).

진술되어졌다.

**〈표 1〉 제학자들의 이미지에 관한 개념적 정의**

학 자	이미지 개념
리프만(Lippmann)	대상에 대한 정신적 영상(pictures)
발로굴(Balogul)	지식,느낌,인상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 개념
마크스(Marks)	지각(perceptions)
히쉬만(Hirschman)	신념과 태도(beliefs and attitudes)
마티뉴와 마젤 (Martineau & Mazze)	개성(personality)
보딩(Boulding)	진실하다고 믿는 개인이 종합적인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
코틀러(Kotler)	신념(beliefs),아이디어(ideas),인상(feelings)
맥다니엘(McDaniel)	지식(knowledge), 신념(belief),인상(feeling)
레놀드와 구트만 (Reynold & Guttman)	대상에 대한 감정,지각, 신념,태도, 개성,느낌
홀스티(Holsti)	인지,가치적 평가,추론된 의미
모간(Morgan)	상황에 대한 관찰과 이해의 능력
코울슨(Coulson)	호의/불호의적 인상(impression - good or bad)
이태희(1997)	무형적으로 기대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 일련의 자극내용을 차별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는 것
심인보(1999)	자극과는 관계없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구체적·감각적으로 마음 속에 재생되는 삶
박석희(2000)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 이를 지각이라는 정신적 반응을 거쳐 형성되는 것
최원주(2002)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개개인 각자의 신념과 생각 그리고 인식 등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

●자료 :Reynold and Gutman, 1984:27; 조은희,2003:12; 이혜경,2006:13

한편, 이미지 자체의 개념적 정의의 언어적 모호성과 개별적 인지처리 과정에 따른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적용의 수준 및 범주의 문제로 인해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는 바, 단순한 물질적 형태의 이미지에서 가장 추상적인 신(神)에 대한 이미지까지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 본 이미지의 개념적 수준에서의 진술방법이나 그 실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지의 개념 정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이미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주제별, 영역별, 적용범위별 등으로

살펴보고,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측정되는가?’라는 일반적인 나열적 진술방법을 통해 제시해주고 있으나,<sup>4)</sup> 이는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sup>5)</sup>

이러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실제의 내용(content)에 중점을 두고 ‘무엇은 이미지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즉 무엇(What)에 관한 내용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초점을 맞춘, 즉 어떻게(How)에 관한 구성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표 2〉 이미지의 개념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관점

구 분	이 미 지	적 용 레
내용적 측면	이미지의 내용(content); 이미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이미지의 명명; 주체별, 객체별, 적용범위별 등
과정적 측면	이미지의 과정(process);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며, 그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미지 형성과정

따라서 본 연구는 ‘불교이미지’에 대한 명명을 통해 인식적 차원에서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개념인식 구성요소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는 불교이미지라는 내용적 측면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4) 유우열(2006)은 지각·기억·예견 이미지, 무의식 이미지, 언어적 이미지, 모태 이미지, 물질적 이미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원철(2000)은 개인적 이미지, 독자적 이미지, 공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공중적 이미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은희(2003)은 브랜드 이미지, 기업 이미지, 조직 이미지, 국가 이미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민형동(2007)은 이미지를 조사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에 따른 분류, 이미지 주체와 객체의 동일 여부에 따른 분류, 객체의 계층화에 따른 분류, 이미지의 세분화에 따른 분류 등으로 학자들의 연구의 주제에 대한 범위와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지고 있다.

5) 특정한 범위나 한정된 영역에 관한 이미지의 개념적 수준에서의 진술에는 용이하나 ‘이미지’ 자체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진술하는 너무나 열적이고 비분류적이라 할 수 있겠다.

## 2. 선행연구를 통해 본 불교이미지

이미지 관한 기존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이미지라는 개념이 초기에는 '대상에 대한 심적인 상태'라는 의미로 심리학에서 논의되다가, 경영학에서 이미지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람의 태도 형성 및 잠재적 행동요인'으로 정의하고, 기업의 이미지와 연결 지어 기업이미지를 많이 연구하였다(민형동, 2007:4).

하지만 불교에 관련한 이미지, 즉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불교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 차원에서의 연구 내지 비교종교학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종교의 비교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연구된 부분만 있을 뿐, 불교 자체를 이미지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다.<sup>6)</sup>

그리고 단순 불교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 차원은 불교 경전이나 교리의 이해에 관한 연구에서 불교학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본 연구의 방향과는 별개라 할 수 있으며, 간략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종교로써 불교를 빈도 분석 차원으로 살펴보는 것은 보고서 차원의 형식으로 정부기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비교종교학적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된 선행연구에서도 타종교와의 비교 차원에서 접근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불교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불교의 종교적 표상을 불교, 스님, 사찰, 보살이라는 불교의 종교적 차원의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6)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원철(2007)은 “그간의 불교학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파악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 또는 어떤 인물의 사상을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이해하며 평가하는 것이 중심적인 관심사이다. 그러다 보니, 상징과 의례라든가, 사회, 경제, 정치, 예술 등의 부문을 통해서 실제로 표현되는 자기 종교의 현상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주변부에 위치한다.”고 말하고 있다.

**<표 3> 불교의 종교적 표상**

구분	종교적 표상에 대한 이해
불교	기원전 5세기 초엽에 인도의 석가모니가 설법한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온갖 번뇌를 버리고,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됨을 목적으로 한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크게 나눈다.
스님	절에서 살면서 불법을 닦고 실천하며 포교에 힘쓰는 사람이다. 본디 삼보의 하나로 그러한 단체를 이르던 말로, 법신, 불자, 사문, 승, 승가, 승려이다. 높임말로 선사, 스님 등이 있다.
사찰	불상을 모셔놓고 승려들이 거처하면서 불교를 닦고 불교 교리를 설하는 곳으로 사원, 정사, 승원, 가람 등으로 불린다.
보살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부처이다. 부처는 깨달음을 통해 주체적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은 자아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동시에 구현해 나가는 불교적 구도자이다.

●참고: 박준성, 2004:21

이와 같이, 불교는 불교라는 자체적 교리와 스님, 사찰(절), 보살이라는 구분으로 종교적 차원의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종교적 표상은 불교이미지의 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간의 불교관련 연구에서 불교이미지라는 차원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며, 다만,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적 인식에 관련한 연구와 사회조사 차원의 연구는 있어 왔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종교적 차원에서의 종교적 인식관련 연구와 사회조사 차원의 연구들**

구분	조사 및 연구 내용
대효(1995)	조사 연구에서 불교에 대하여 긍정적 이유를 역사 깊은 민족종교, 우리 정서에 부합, 훌륭한 스님들의 배출 때문에, 호국불교의 특색 때문에, 훌륭한 문화유산 때문에, 철학적으로 합리적인 교리 때문에, 사회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를 하였으며,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를 분쟁에 자주 휘말리기 때문에, 복지활동이 미미하고 소극적, 사회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등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스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수행이 철저, 학문적 지식의 풍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 의복이 특색 있고 전통이 있어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서, 불의에 항거하고 약한 자의 편이어서 등으로 스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중단이 사찰 분쟁, 특권의식, 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구분	조사 및 연구 내용	
	불교(+)	불교(-)
이진구(1997)	철학(자력/數仞之牆=大眞)	철학(노력주의/주관주의/개인주의/고원난행/인간본위)
	자주적 인격(공화정체/자비)	미신(우상숭배/다신론/범신론/혼합주의/카멜레온)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1999)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 종교를 믿는 이유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믿으며, 청소년 불자의 자부심이 저조하였음. 사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찰을 '경건하고 엄숙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늑하고 편안하다', '답답하고 무섭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순으로 답변하였다.	
조기룡(2004)	신홍 대형 사찰 주지에 대한 분석의 내용으로 주지의 카리스마(행동범주, 인생경험, 이미지 참조), 신도의 헌신(봉사, 엄격함) 등을 들고 있다.	
박준성(2004)	불교에 대한 신뢰를 불교, 불교지도자, 불교기관/단체, 불교인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불교이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역사성, 대중성, 보편성, 전통성, 비강요성, 마음의 안정(조용하고, 차분하다)을 긍정적 이미지로, 폭력성, 세속화를 부정적 이미지로 뽑고 있다. 둘째, 불교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자기수양과 성찰, 깨달음, 자비를 베푼다, 겸손, 덕 등을 긍정적 이미지로, 돈을 요구, 부유한 생활, 자비롭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다 등을 부정적 이미지로 뽑았다.	
	셋째, 불교기관/단체에 대한 이미지는 안정되고, 가족의 종교, 조용한 분위기와 구제와 봉사, 희생, 피해를 주지 않으며 부조리가 없이 깨끗하다. 자비를 베푼다 등을 긍정적 이미지로, 영리화, 상업화, 기업화, 싸움을 한다. 현실과의 괴리를 부정적 이미지로 뽑았다. 넷째, 불교인(신도)에 대한 이미지는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 주변 사람, 인간성 좋으며, 한국의 종교, 무소유 정신, 자비와 선을 베푼다, 타종교 인정, 자유롭다 등을 긍정적 이미지로, 나쁜 사람의 불교인을 자칭, 믿음과 관심이 안 가기 때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 본인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 등을 부정적 이미지로 뽑았다.	
한국갤럽(2005)	2004년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의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비종교인의 호감이 가장 높은 것은 불교였으며, 종교적 성향 즉, 종교 교리('해탈설', '윤회설')에 대한 믿음은 이전 조사에 비해 낮아졌으며, 모든 종교의 교리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성직자관/신도 지도 방법이 '권위적' 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품위나 자질이 부족한 성직자가 많고', '종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교세나 사회적 영향력에 관심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종교적 규율이 일정 부분 '엄격하며', 비종교인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09)	조계종 승려를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서 승가에 대해 일반인과 불자 모두 '자비의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청정계행'과 '수행정진'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음. 승려들의 이미지는 '신뢰도', '전문성', '청렴성', '사회참여 정도 및 영향력'으로 평가하였으나,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음.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불교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불교에 대한 인식 여부를 알 수 있는 상술한 연구를 기반으로 불교이미지는 인식적 수준에서 타종교, 특히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으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불교이미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적절성이 높은 긍정적 측면으로는 사찰(스님), 신도, 활동적 이미지로 나누어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적절성이 낮은 부정적 측면으로는 관계성 이미지, 비과학적 이미지, 무속(미신)적 이미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표 5〉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본 불교이미지의 구성요인 검토

구분		관련 선행연구	비고
적절성이 높은 긍정적 측면	사찰 및 스님	대효(1995);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1999); 조기룡(2004); 박준성(2004)	사람
	신도	대효(1995); 박준성(2004); 조기룡(2004);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09)	사람
	활동*	대효(1995); 박준성(2004); 한국갤럽(2005);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09)	일
적절성이 낮은 부정적 측면	비관계성	대효(1995);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1999); 박준성(2004); 한국갤럽(2005);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09)	방법
	비과학성	대효(1995); 이진구(1997);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1999); 한국갤럽(2005)	기타
	무속(미신)*	이진구(1997);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1999)	기타

\*표시의 인식개념 구성요소는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삭제되었음.

7) 불교교리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불교교리가 과학적이라든지, 인과관계적 측면이 있다는 불교교리 탐구를 통한 학문적 논의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갤럽, 2005). 결국 불교교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류법인 사람, 일, 방법의 분류구성 요인에 불교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람은 신도, 스님, 사찰, 일은 활동, 방법은 관계성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불교라는 이미지의 대상을 하나의 역동적인 체계로 조직과 같이 간주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알버트와 휘튼(Alber & Whetten, 1985)은 조직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준거를 들었다. 이들은 조직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고, 비교되는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조직들도 핵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독특성과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미지(예를 들어, '보수적이다', '이지적이다', '박력있다' 등)를 형성하였듯이, 정체성을 지닌 조직들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지닐 수 있다. 즉, 각 조직들은 조직이념, 조직운영정책, 조직주력분야, 조직인사정책, 최고경영자의 이미지, 조직이미지 광고 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직 외부의 사람들은 특정 조직에 대해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sup>8)</sup>

이처럼 불교이미지의 인식적 개념 구성요인들을 바탕으로 불교이미지가 구성된다면, 다음과 같은 형성영향요인에 의해서 불교이미지는 형성되고 변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를 신뢰할 때 종교에 대하여 개인적·사회적·종교적 이미지로 신뢰를 한다. 즉, 종교를 신뢰할 때 종교적 이미지(Oates, 1973; St. Clar, 1994; 박준성·김의철, 2003)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Collins, 1981; James, 1929; 사미자, 2001)과 사회적 자본이나 영향력 이미지 등에 따라서 종교를 신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상술한 불교이미지의 조작적 정의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불교이미지를 종합적 이미지로 보았을 때 불교와 관련된 모든

8) 부연하면, 조직의 정체성과 조직의 이미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직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직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것,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인식의 매체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불교이미지의 형성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불교이미지 형성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불교의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으로는 불교에 대한 신뢰를 불교 교리 및 종교적 규율(대효, 1995; 박준성, 2004; 한국갤럽, 2005), 불교지도자(대효, 1995; 박준성, 2004), 수행방법(한국갤럽 2005, 박준성, 2004;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1999), 사찰 및 불교기관/단체(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1999; 박준성, 2004), 가족·주변사람(박준성, 2004; 한국갤럽, 2005;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9), 언론(박준성, 2004) 등을 뽑을 수 있다.

결국, 불교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불교의 구성 주체(절, 스님, 신도), 불교의 활동, 불교의 교리 등을 통해 형성되어 만들어지는 긍정과 부정을 혹은 좋고 나쁨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이미지로 본 연구에서는 불교를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불교이미지는 불교에 대한 개인적·사회적·종교적 이미지를 종합한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불교이미지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불교의 구성 주체(절, 스님, 신도), 불교의 활동, 불교의 교리 등을 통해 형성되어 만들어지는 불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혹은 좋고 나쁨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이미지이다.

### Ⅲ. 조사설계 및 방법

#### 1. 조사설계

불교이미지도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은 알버트와 휘튼(Albert & Whetten,

1985)의 논거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정체성을 지니는 핵심적인 성격을 가지며, 비교되는 타종교(기독교, 천주교 등)와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영속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불교이미지 측정함에 있어 선행연구 중에서 기업이미지, 조직이미지, 기독교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차용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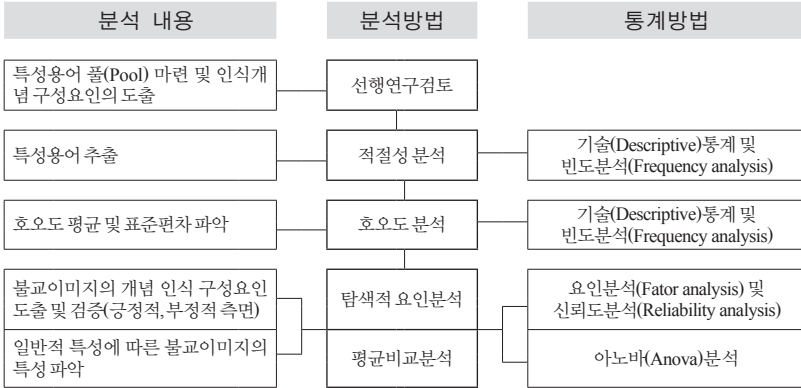
이들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이미지 측정방법은 전반적 이미지 측정법<sup>9)</sup>과 요소구성 특성별 측정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요소특성별 측정은 다시 의미차별법<sup>10)</sup>과 다속성태도모델<sup>11)</sup>로 구분할 수 있다(이해경, 2006:34).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이미지 측정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인 불교이미지에 대한 인식개념적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학생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특성 비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6>과 같은 분석내용을 분석방법 및 통계방법을 활용하는 조사설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불교이미지 관련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특성용어 풀(Pool)과 인식개념 구성요인을 검토한다. 불교이미지와 관련한 특성용어의 풀을 인식개념 구성요인과 연계하여 제시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 9)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내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좋고 나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편하기는 하나, 속성 작용 정도의 강·약확인이 불가하다.
- 10) 조사대상자들이 각각의 상반된 형용사에 대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여 각 형성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대상의 이미지에 대한 프로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방법 간편함과 도표화, 이미지 추이를 알기 쉽고 신뢰성이 높으나, 후광효과로 인하여 평가의 객관성 문제 결여가 발생한다.
- 11) 지각된 대상의 특성과 지각된 특성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상적인 이미지 측정이 가능하나, 실제의 이미지 측정의 어려움, 충분한 정보 제공의 어려움이 있다.

〈표 6〉 본 연구의 조사 설계



〈표 7〉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불교이미지와 관련한 특성용어 풀(Pool)

구분	특성용어	비고
불교이미지 관련 특성용어(Pool)	<p>역사성, 대중성, 보편성, 전통성, 비강요성, 마음의 안정, 조용하다, 차분하다, 안정된다, 가족의 종교, 조용하다, 구제와 봉사, 희생, 피해를 주지 않는다, 깨끗하다, 자비를 베푼다, 자랑스럽다, 신중하다, 한국의 종교, 경건하다, 엄숙하다, 아늑하다, 편안하다, 민족종교, 우리 정서에 부합, 훌륭하다, 호국불교, 훌륭하다, 편안하다, 웅장하다, 예술적이다, 고귀하다, 엄격하다, 자기 수행과 성찰, 깨닫다, 자비를 베푼다, 겸손하다, 덕, 인간성 좋다, 무소유 정신, 자비와 선을 베푼다, 타종교를 인정한다, 자유롭다, 신뢰한다, 전문적이다, 청렴(검소)하다, 자비의 구현수행이 철저하다, 학문적 지식의 풍부하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의복이 특색있다, 전통적이다, 전통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다, 평등하다,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따뜻하다, 다정하다, 봉사, 엄격하다, 사회참여 정도 및 영향력, 사회사업을 활발하게 한다, 책임감이 있다, 철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자제력이 있다, 미래지향적이다, 과학적이다,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 답답하다, 복지활동이 미미하다, 소극적이다, 정적이다, 재미있다, 생산적이다, 사교적이다, 명량하다, 폭력성, 세속화, 영리화, 상업화, 기업화, 현실과의 괴리, 형식적이다, 결단성이 있다, 무섭다, 신비스럽다, 미신, 돈을 요구, 부유한 생활, 자비롭지 못하고 깨끗함이 없다, 싸움을 한다, 권위적이다*, 품위나 자질이 부족하다, 종단의 사찰 분쟁, 특권의식,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 투명하지 않다*, 보수적이다, 믿을 수 없다*</p>	<p>* 표시의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어 씀</p>

둘째, 상기와 같은 특성용어 풀(Pool) 중에서 1차적 검토 및 필터링을 통해 46개의 특성용어를 추출하고,<sup>12)</sup> 이에 대한 적절성 분석 및 호오도 분석을 한다.<sup>13)</sup> 여기서 적절성 분석은 불교이미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호오도는 불교이미지와 관련해 좋고 나쁨의 정도를 묻는다. 결국, 이를 통해 불교이미지에 적절성이 높은 특성 용어와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특성용어의 좋고 나쁨에 대한 정도를 기술통계치로 파악하도록 한다(<부록 1 참조>).

셋째, 추출된 특성용어를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와 낮은 용어로 구분하여 이들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여 그 추출된 특성용어의 범주화를 고려하고(<부록 2 참조>), 이들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여, 추출된 요인을

12) 본 연구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용어의 선택이다. 이와 같은 특성용어는 비교종교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와 중무행정 연구 등, 그리고 특성용어와 관련한 불교신자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사출한 바와 같이 특성용어의 풀(Pool)을 만들고, 사전조사의 성격으로 학생 및 불교신자들에게 불교이미지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특성용어의 추출을 요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본 46개의 특성용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설문하도록 하였다. 추출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위주로 하였으며, 단순하고 명료한 형용사나 동사 위주의 단어로 하여 특성용어를 추출하고 이를 선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였다.

13) 이와 같이 특성용어를 통해 이미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어의 구조를 조사할 목적으로 오스굿(Osgood) 등이 개발한 것으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를 평가척도로 사용한다. 즉 평판이 좋다, 나쁘다 등과 같이 상반되는 형용사가 중심이 되며, 이를 토대로 하나 이상의 대상을 평가하게 한 다음 각 형용사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이미지 프로필을 나타내준다. 혹시 이때 상반되는 용어가 없거나 명확치 않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펠법(Stapel Scale)인 어의차이법이 개발되었으며(민형동, 2007:41), 유태용(1994, 1995)은 오스굿(Osgood)의 기법을 토대로 특성단어에 관한 적절성과 호오도로 기업의 이미지를 측정하였으며, 유태용·이종구(1996, 1997)는 오스굿의 기법을 토대로 특성단어에 관한 적절성과 호오도로 대학의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이장송·김성경·정현숙(2003)은 오스굿(Osgood)의 3가지 요소들에 준하여 76개 형용사를 20개 개념에 적용시킨 문항으로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유우열(2006)은 기독교 중심이기 하지만 종교적 이미지를 종교 대학생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는 바, 특히 여러 차원의 다른 이미지 중에서 교회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36개 질문으로 물어 분석하였다. 한편, 정원철(2000), 조은희(2003), 이혜경(2006)의 연구는 특성단어를 중심으로 행정이나 정부의 이미지를 도출하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통해 불교이미지의 인식개념적 구성요인을 검증해보고 명명해 보도록 한다.

넷째, 설문참여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대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타 종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불교이미지의 관리 전략을 위한 방향의 기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조사방법

상술한 조사설계를 통해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은 적절성 평가와 호오도 분석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참여자 특성을 파악하는 3부분으로 분류하는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적절성과 호오도 분석은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8〉 설문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설문의 내용	척도	문항 수
적절성 분석	특성용어 46개의 불교이미지에 적절성 정도	7점 척도	46개
호오도 분석	특성용어 46개의 불교이미지에 좋고 나쁨의 정도	7점 척도	46개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전공, 부모님(아버지)의 종교, 부모님(어머니)의 종교, 본인의 종교	-	6개

이와 같이 구성된 설문을 가지고,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금강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양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sup>14)</sup> 회수된 설문지는 201부가 되나, 이 중 통계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응답은 분석에서 34부를 제외하고 총 177부를 가지고 조사설계

14) 설문의 배포 및 회수 등에서 도움 주신 금강대학교 최중석, 서문성 교수, 청양대학 윤석환 교수, 충남대학교 김시동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에 의해 실증분석을 위해 SPSS 16.0 버전(Version)과 Excel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sup>15)</sup>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문 참여 대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설문 참여 대학생 현황표**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74	41.8%	부모님의 종교 (아버지)	불교	67	37.9%
	여성	103	58.2%		기독교	25	14.1%
연령	20세 이하	44	24.9%		천주교	8	4.5%
	21~22세	66	37.3%		기타	77	43.5%
	23~24세	35	19.8%	부모님의 종교 (어머니)	불교	70	39.5%
	25세 이상	32	18.1%		기독교	35	19.8%
전공	불교학 전공	18	10.2%		천주교	17	9.6%
	불교학이외의 전공	159	89.8%	기타	55	31.1%	
학교	금강대	74	41.8%	본인의 종교	불교	39	22.0%
					기독교	31	17.5%
	충남대	84	47.5%		천주교	11	6.2%
					기타	96	54.2%
청양대	19	10.7%					

이처럼 설문 참여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두드러진 것은 불교가 부모님들의 종교와 본인의 종교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무교 또는 기타종교)가 31.1%~54.2%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교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

15) 설문 표본 추출의 중요성을 두말할 것이 없으나,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지음과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수업 담당 교수님께 부탁드린 것은 타 설문에 비해 설문 자체의 난이도를 고려하고, 설문 에 대한 성실성을 재고하고자 함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된 설문배포로 인해 전체 대학생을 대표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지역적·성별적·연령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설문자 참여의 일반적 특성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교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 경우 불교학 전공의 참여 대학생의 수가 적어 통계분석을 하지 않았다.

고 있어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sup>16)</sup>

## IV. 실증분석

### 1. 불교이미지의 인식개념 구성요인 도출을 위한 요인 분석

#### 1) 불교이미지의 적절성 및 호오도 분석 결과

불교이미지에 대한 적절성 및 호오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적절성 분석은 부록 1에서와 같이 나타나며, 이 중 적절성이 높은 것(평균값이 5.0이상인 것)과 적절성이 낮은 것(평균값이 4.0이하인 것)으로 구분하여 특성용어를 적절성이 높은 15개와 적절성이 낮은 12개의 특성용어를 또 다시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호오도 분석을 통한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이 나타난다.

**<표 10> 적절성이 높고 낮은 특성용어 호오도 평균값과 호오도 순위표**

구분	순위	특성용어	개수(N)	평균	표준편차	호오도순위
적절성이 높은 것 (* 평균값 5.0이상)	1	역사가 깊다	176	6.0791	0.96793	1
	2	전통적이다	177	5.7119	1.10347	4
	3	자비롭다	177	5.7797	1.25319	2
	4	웅장하다	177	5.5367	1.18228	7
	5	부지런하다	177	5.5455	1.38901	6
	6	예술적이다	177	5.7288	1.20836	3
	7	정적이다	177	5.1017	1.46584	15
	8	검소하다	177	5.4746	1.32317	8
	9	한국적이다	177	5.6591	1.10981	5

16)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갤럽(2006) 조사의 한국인 종교의식 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구분	순위	특성용어	개수(N)	평균	표준편차	호오도순위
적절성이 높은 것 (*평균값 5.0이상)	10	엄격하다	177	4.6497	1.56358	28
	11	신중하다	176	5.2203	1.28011	10
	12	자제력이 있다	177	5.1808	1.42664	13
	13	겸손하다	176	5.2203	1.40698	11
	14	건전하다	177	5.3164	1.35320	9
	15	깨끗하다	177	5.1751	1.40932	14
적절성이 낮은 것 (*평균값 4.0이하)	1	무섭다	177	2.6497	1.46606	1
	2	재미있다	177	4.0508	1.77185	9
	3	명랑하다	177	3.8475	1.55739	6
	4	미래지향적이다	177	3.7771	1.64056	5
	5	생산적이다	177	3.9943	1.59462	8
	6	미신(무속)적이다	177	3.3182	1.74713	2
	7	사교적이다	177	4.1243	1.63635	11
	8	민주적이다	176	4.2655	1.49339	12
	9	사회적이다	177	4.3446	1.45379	14
	10	과학적이다	177	3.8927	1.60779	7
	11	자유롭다	177	4.2994	1.60456	13
	12	현실적이다	177	4.4520	1.55549	17

일반적으로 적절성 분석과 호오도 분석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특성용어가 있으며, 적절성이 높은 것에는 ‘정적이다’와 ‘엄격하다’인데, 이는 불교이미지에 적절하면서 부정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절성이 낮으면서도 호오도 순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면 현실적이다. ‘미신(무속)적이다’, ‘재미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절성이 낮으면서 불교이미지에 대한 기대적 가치의 반영으로 인해 그 순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요인분석을 통한 불교이미지의 인식 개념의 구성요인 도출

문항간 내적일관성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알파(Alpha) 계수는 0.886으로 나타나 매우 적절한 편이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문항이 삭제되었을 때의 알파(Alpha) 계수가 0.886보다 높은 특성용어 ‘엄격하다’, ‘웅장하다’, ‘정적이다’를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표 11>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신뢰도 검증**

특성용어	해당문항을 제외한 척도분산	해당문항을 제외한 척도평균	수정된 문항 전체 상관	해당문항을 제외한 알파계수
건전하다	75.8971	125.449	0.658	0.873
검소하다	75.7371	124.505	0.709	0.871
겸손하다	75.9943	122.822	0.719	0.870
깨끗하다	76.0229	125.689	0.617	0.875
부지런하다	75.6629	127.524	0.567	0.877
신중하다	75.9943	124.247	0.749	0.870
<u>엄격하다</u>	76.5771	132.039	0.359	0.888
역사가 깊다	75.1314	134.644	0.519	0.880
예술적이다	75.4800	134.309	0.408	0.884
<u>웅장하다</u>	75.6743	136.704	0.330	0.887
자비롭다	75.4286	126.706	0.670	0.873
자제력이 있다	76.0286	124.672	0.642	0.874
전통적이다	75.5029	131.159	0.590	0.877
<u>정적이다</u>	76.1200	135.371	0.287	0.891
한국적이다	75.5486	133.847	0.474	0.881

\* 사례수=177, 문항수=15, Alpha=0.886

한편,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알파(Alpha) 계수는 0.848로 나타나 매우 적절한 편이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문항이 삭제되었을 때의 알파(Alpha) 계수가 0.848보다 높은 특성용어 ‘무섭다’, ‘미신(무속)적이다’를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표 12〉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신뢰도 검증

특성용어	해당문항을 제외한 척도분산	해당문항을 제외한 척도평균	수정된 문항 전체 상관	해당문항을 제외한 알파계수
과학적이다	43.2428	118.685	0.492	0.838
명랑하다	43.2601	113.694	0.678	0.824
무섭다	44.4971	136.391	0.001	0.868
미래지향적이다	43.3526	116.602	0.542	0.834
미신(무속)적이다	43.8035	135.217	0.008	0.874
민주적이다	42.8555	116.822	0.601	0.830
사교적이다	43.0000	110.849	0.720	0.820
사회적이다	42.7688	115.481	0.668	0.826
생산적이다	43.1214	110.840	0.749	0.819
자유롭다	42.8092	116.283	0.569	0.832
재미있다	43.0694	110.286	0.671	0.823
현실적이다	42.6821	116.044	0.601	0.830

\* 사례수=177, 문항수=12, Alpha=0.848

요인분석은 요인의 추출을 위한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였고 직각 회전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들에서 Kaiser-Meyer-Olkin(KMO) 척도는 0.889로 요인분석의 표본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표 13>에 제시되었다.

성분행렬을 요인적재치로 05기준으로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바, 요인 1은 ‘검손하다’, ‘검소하다’, ‘건전하다’, ‘깨끗하다’, ‘신중하다’, ‘자제력이 있다’, ‘자비롭다’, ‘부지런하다’가 공통된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요인 2는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가 공통된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표 13〉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요인분석

특성용어	성분행렬	
	요인 1	요인 2
겸손하다	0.855	0.160
검소하다	0.836	0.179
건전하다	0.830	0.103
깨끗하다	0.782	0.114
신중하다	0.772	0.272
자제력이 있다	0.723	0.200
자비롭다	0.651	0.384
부지런하다	0.596	0.294
역사가 깊다	0.116	0.864
예술적이다	0.107	0.740
전통적이다	0.298	0.696
한국적이다	0.226	0.661

주:KMO=0.889, Bartlett구형성 검증 유의도=1107.482\*\*\*(\* p<0.5, \*\*p<0.01, p<0.001)

한편,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들에서 Kaiser-Meyer-Olkin(KMO) 척도는 0.915로 요인분석의 표본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표 14>에 제시되었다.

성분행렬을 요인적재치로 0.5기준으로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바 요인 1은 ‘사교적이다’, ‘자유롭다’, ‘사회적이다’, ‘민주적이다’, ‘생산적이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현실적이다’가 공통된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요인 2는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가 공통된 범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이 설명되었다.

〈표 14〉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요인분석

특성용어	성분행렬	
	요인 1	요인 2
사교적이다	0.840	0.212
자유롭다	0.782	0.042
사회적이다	0.773	0.206
민주적이다	0.732	0.216
생산적이다	0.696	0.472
명랑하다	0.645	0.424
재미있다	0.644	0.443
현실적이다	0.595	0.328
과학적이다	0.154	0.833
미래지향적이다	0.234	0.814

주: KMO=0.915, Bartlett구형성 검증 유의도=868.263\*\*\*(\* p<0.5, \*\*p<0.01, p<0.001)

## 2 일반적 특성을 통해 본 불교이미지의 평균 비교 분석

### 1) 부모님(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평균 비교 분석

부모님 중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평균 비교 분석을 위한 아노바(Anova) 분석과 사후검증으로 던컨(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구조화된 적절성이 높은 값의 호오도 평균값과 적절성이 낮은 값의 호오도 평균값을 통해 이의 평균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5>와 같으며, 이를 통해, 부모님 중 아버지의 종교에 따라 적절성이 높은 값의 특성용어의 호오도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아버지의 종교에 따라 적절성이 낮은 값의 특성용어의 호오도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와 천주교를 믿는 아버

지를 둔 대학생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나타났으며,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와 기타(무교 또는 기타 종교 등)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나타났다.

<표 15> 설문 참여 대학생의 특성 중 부모님(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평균비교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적절성이 높은 이미지 호오도 평균	불교	67	5.6648	0.69286	3.544*	a
	기독교	25	5.2533	0.64578		ab
	천주교	7	4.9429	1.06557		b
	기타	76	5.3053	0.88465		ab
	계	175	5.4133	0.80895		a > b
적절성이 낮은 이미지 호오도 평균	불교	67	4.3035	0.89679	6.240***	a
	기독교	24	3.8229	0.98550		ab
	천주교	8	3.8958	0.80518		ab
	기타	74	3.6250	0.97302		b
	계	173	3.9277	0.97118		a > b

\* p<.05, \*\* p<.01, \*\*\* p<.001

## 2) 부모님(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평균 비교 분석

부모님 중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평균 비교 분석을 위한 아노바(Anova) 분석과 사후검증으로 던컨(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구조화된 적절성이 높은 값의 호오도 평균값과 적절성이 낮은 값의 호오도 평균값을 통해 이의 평균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6>과 같으며, 이를 통해, 부모님 중 어머니의 종교에 따라 적절성이 높은 값의 특성용어의 호오도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어머니의 종교에 따라 적절성이 낮은 값의 특성용어의 호오도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와 기타

(무교 및 기타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나타났으며,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 천주교와 기독교와 기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나타났다.

〈표 16〉 설문 참여 대학생의 특성 중 부모님(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평균비교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적절성이 높은 이미지 호오도 평균	불교	70	5.5762	0.68054	4.364*	a
	기독교	35	4.9962	0.84744		a
	천주교	16	5.4750	1.06134		a
	기타	54	5.4543	0.78306		b
	계	175	5.4133	0.80895		a > b
적절성이 낮은 이미지 호오도 평균	불교	70	4.1929	0.87568	6.634***	a
	기독교	34	3.4902	0.97825		b
	천주교	17	4.3824	1.08975		a
	기타	52	3.7083	0.93563		b
	계	173	3.9277	0.98117		a > b

\* p<.05, \*\* p<.01, \*\*\* p<.001

### 3) 본인의 종교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평균 비교 분석

본인의 종교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평균 비교 분석을 위한 아노바(Anova) 분석과 사후검증으로 던컨(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구조화된 적절성이 높은 값의 호오도 평균값과 적절성이 낮은 값의 호오도 평균값을 통해 이의 평균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17>과 같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종교에 따라 적절성이 높은 값의 특성용어의 호오도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본인의 종교에 따라 적절성이 낮은 값의 특성용어의 호오도 평균값의 차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특히,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나타났으며,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와 불교 이외의 종교들(기독교, 천주교, 기타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나타났다.

〈표 17〉 설문 참여 대학생의 특성 중 본인의 종교에 따른 평균비교표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적절성이 높은 이미지 호오도 평균	불교	39	5.7026	0.69178	3.839*	a
	기독교	31	5.0710	0.81974		b
	천주교	10	5.2467	1.09907		ab
	기타	95	5.4239	0.78188		ab
	계	175	5.4133	0.80895		a > b
적절성이 낮은 이미지 호오도 평균	불교	39	4.4979	0.86105	6.285***	a
	기독교	30	3.6833	1.04276		b
	천주교	11	3.7500	0.63683		b
	기타	93	3.7885	0.96235		b
	계	173	3.9277	0.98117		a > b

\*p<.05, \*\*p<.01, \*\*\*p<.001

## V. 결론

###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1) 불교이미지의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도출 및 명명화

특성용어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성이 높은 단어는 2가지 요인으로 묶임을 볼 수 있었다. 먼저, ‘겸손하다’, ‘겸소하다’, ‘건전하다’, ‘깨끗하다’, ‘신중하다’, ‘자제력이 있다’, ‘자비롭다’, ‘부지런하다’ 는 「기대감」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 는 「사찰이미지」로 명명하고자 한다.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의 구성요소 중에서 일반적 분류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기대감과 사찰이라는 그 대상이 일정부분 구체적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대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대감, 즉 불교신도(자)나 스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과 사찰이미지의 경우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며, 더불어 일반 스님 이외에 고승의 경우 이러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절한성이 낮은 단어도 역시 2가지 요인으로 묶임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사교적이다', '자유롭다', '사회적이다', '민주적이다', '생산적이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현실적이다'를 「비관계성」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를 「비과학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교의 활동성에 관해 사회 및 정치적 활동이나 포교 활동, 봉사 활동이 등이 매우 미약하고, 영향력이 적어 이에 대해 매우 적절한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불교 교리상으로는 과학적이고,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과관계라든지 과학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이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불교이미지의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도출 및 명명화

구분		세부내용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	사찰 이미지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
	기대감	건전하다, 검소하다, 겸손하다, 깨끗하다, 부지런하다, 신중하다, 자비롭다, 자제력이 있다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	비관계성	현실적이다, 자유롭다, 사회적이다, 민주적이다, 사교적이다, 생산적이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비과학성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결국, 대학생들의 인식적 수준에서의 불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

찰 등 가시적인 이미지와 신도 및 스님들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반면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 포교 등에 대해 매우 관계를 잘 맺고 있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2) 불교이미지 관리 전략의 기본방향

일반적 특성 중 종교적 성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님과 본인의 종교에 따라 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차이가 있었다. 불교라는 것이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부모님의 종교에 따른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불교이미지와 타종교의 구별 및 차이가 경향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불교와 기독교는 비슷하고, 천주교와는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인식은 평균비교 차이에서 본인의 경우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호오도 평균값의 경우에는 불교의 모든 종교와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불교를 믿는 사람과 불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 불교에 대한 적절성이 낮은, 즉 부정적인 이미지의 차이는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결국, 불교라는 종교의 신념으로 개인이 믿거나 믿지 않은 것에 대해 그것을 좋게 보느냐, 좋지 않게 보느냐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불교라는 인식의 관리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sup>18)</sup> 긍정적 측면과

17) 한국갤럽(2005)의 조사에서 ‘내가 믿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라는 답으로 타종교를 부정하는 경향이 컸다고 한다.

18) 선불리, 타종교에서 하는 교세확장을 위한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클 것이다. 결국, 불교 고유의 특징을 가미하지 않은 방법은 실패할 것이며, 이것이 차별화 전략의 방향이 될 것이다.

관련해서 불교신자 및 신도를 위해 더욱더 재고해야 할 것이며,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비과학적 및 비과학적인 인식에 관해서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다.

##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불교가 본 연구에서 일반적 인식의 개념요소로 나왔던 것처럼 역사성과 전통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인식상에서도 고착된 일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었다.<sup>19)</sup>

하지만 불교이미지 중 일부는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일부일 것이며, 나머지 다른 불교이미지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불교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가치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살펴 보았다. 물론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대학생들에 한정된 그들의 불교이미지를 살펴보는 데 큰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

19) 관념이라는 말은 희랍어의 ‘본다(to see)’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모호한 이미지를 관찰하여 하나의 관념에 이르면 보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확신이란 개념으로 이미지가 고착될 때, 이미지는 그 매력을 잃게 된다. 이미지가 우리의 지각을 사로잡는 힘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에서 온다. 따라서 이미지를 보는 일은 이미지가 갖는 모호성을 제거하는 수축, 즉 이미지를 잃는 수축인 셈이다. 이미지가 매력을 잃고 지각작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이미지가 우리의 지각에 모호성이 없는 확실한 관념으로 바뀔 때다. 모호성이 사라진, 모호성에 대한 두려움의 느낌이 사라진 이미지는 관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관념으로 바뀐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미지가 관념의 고리 속에서 더 이상의 고리를 연결할 힘이 없어질 때, 우리의 지각도 이미지의 힘에서 벗어나게 된다. 둘째, 의식이 지금 느끼고 있는 외부의 인상(외부 이미지)에 합당한 어떤 범주나 관념을 찾아내어 인상과 관념 간에 동형성이 확인되면, 그 순간 이미지는 힘을 잃게 된다. 이는 이미지가 이미 어떤 익숙한 어떤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유영옥, 2007:162-163).

사료된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 단어와 다양성을 지닌 불교라는 이미지를 살펴본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불교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신념적인 것이어서, 각자의 불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연구 전제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근본적 전제의 한계를 고집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현재의 인문과학의 한계나 풍부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sup>20)</sup>

또한, 설문과정상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통제를 통해 외부효과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 연구를 더욱 더 발전시켜 지속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며, 본 연구에서는 불교이미지에 관한 인식 개념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내용적 측면의 연구가 초점이었다면, 즉 ‘불교이미지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향후 연구과제는 불교이미지의 과정적 측면, 즉 불교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즉 불교이미지의 형성 영향요인 및 과정을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 이미지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기본 수단이 되어 왔다. 우리의 마음 또는 의식의 총체란, 실제로는 이미지, 범주, 은유 및 환유 같은 것들의 그물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현실체를 대신해주는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현실의 일부만을 표상하고 있다. 이미지는 현실의 표피를, 범주는 현실체 간의 유사성을 표상한다. 표상된 현실체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표상되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지식의 건너편에 숨어 있다.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껏 인류의 오랜 역사를 성공적으로 지탱시켜 왔고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서 거의 공리적인 지위를 누려왔다(유영옥, 2007:163).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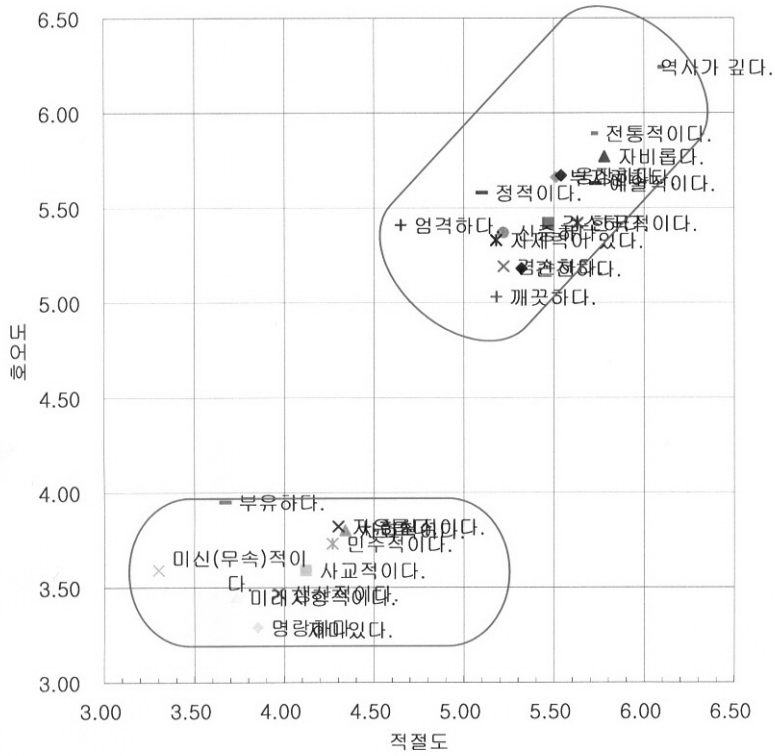
- 김계수(2007) New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대효(1995) 불교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교인식 조사 연구, 승가, Vol.12, pp.321~334.
- 민형동(2007)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성(2004) 한국사회의 종교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인식 연구: 토착심리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성·김의철(2003)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신자간의 신뢰 인식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pp.197~198.
- 사미자(2001) 종교심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유영옥(2007) 상징과 기회의 사회과학, 서울: 홍익사.
- 유우열(2006) 중고등학생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분석, 성결대학교 신학전문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태용(1994) 기업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7 No.1, pp.29~54.
- \_\_\_\_\_ (1995) 기업이미지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8 No.1, pp.141~159.
- 유태용·이종구(1996) 대학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9 No.2, pp.41~60.
- \_\_\_\_\_ (1996) 대학이미지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 및 대학간 이미지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0 No.2, pp.31~54.
- 윤원철(2007) 불교학과 종교학, 불교학 연구, 제18호, pp.19~40.
- 이장송·김성경·정현숙(2003) 종교간 상호 인식 양태에 관한 연구: 한 특수대학 학생들의 종교간 태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한 연구, Vol.11, No.1, pp.263~290.
- 이진구(2000) 근대 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인식, 종교문화연구, 제2호, pp.145~164.
- 이혜경(2006) 행정이미지의 형성요인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원철(2000) 정부이미지의 측정 및 비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계종 중앙총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09)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 의식 성향 조사, 불교신문, 2009. 10. 19일자(출처:http://wooribulgyo.com/new\_view.jsp?ncd=1870.)
-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1999) 청소년 종교 의식 조사, 현대불교 불기 2549년 9월 1일 236호 (출처:http://www.buddhapia.co.kr)
- 조기룡(2004)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사찰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희(2003) 정부브랜드 이미지의 측정에 관한 연구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갤럽(2005)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한국갤럽.
- Albert, S. and Whetten, D. A.(1985) Organizational identit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 , pp.263~295.
- Collins, G. S.(1981) *Psychology and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 James, W.(1929)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 York: Modern Library.
- Oates, W. E.(1973) *The Psychology of religion*, Texas: Word books.
- Osgood, C. E., Suci, G. J., et. al.(1965)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eynold T. J. and Gutman, J.(1984) Advertising is Image Management,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24.
- St. Clar, M.(1994)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New York: Paulist Press.

< 부록 1 > 적절성 순서에 따른 호오도의 특성용어 기초통계량

순번	특성용어 (관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재분류에 의한 잠재변수 도출		대분류 (긍정, 부정)	
				특성용어 (관측변수)	평균		구조별 평균
1	역사가 깊다	6.0791	0.96793	겸손하다	5.3622	5.4133	
2	전통적이다	5.7119	1.10347	검소하다			
3	자비롭다	5.7797	1.25319	건전하다			
4	웅장하다	5.5367	1.18228	깨끗하다			
5	부지런하다	5.5455	1.38901	신중하다			
6	예술적이다	5.7288	1.20836	자제력이 있다			
7	정적이다	5.1017	1.46584	자비롭다			
8	검소하다	5.4746	1.32317	부지런하다			
9	한국적이다	5.6591	1.10981	예술적이다			
10	엄격하다	4.6497	1.56358	역사가 깊다			5.7375
11	신중하다	5.2203	1.28011	웅장하다			
12	자제력이 있다	5.1808	1.42664	전통적이다			
13	겸손하다	5.2203	1.40698	신중하다			
14	건전하다	5.3164	1.35320	정적이다			
15	깨끗하다	5.1751	1.40932	엄격하다			4.8757
16	편안하다	5.1932	1.45687	-	-	-	
17	보수적이다	4.0696	1.58463	-	-	-	
18	신비스럽다	4.8418	1.52549	-	-	-	
19	자랑스럽다	5.0734	1.41832	-	-	-	
20	따뜻하다	4.9716	1.38741	-	-	-	
21	고귀하다	5.0169	1.56479	-	-	-	
22	책임감이 있다	4.9661	1.43772	-	-	-	
23	다정하다	4.9148	1.48078	-	-	-	
24	친철하다	5.0678	1.41659	-	-	-	
25	희생적이다	4.8192	1.54885	-	-	-	
26	봉사적이다	4.9492	1.47043	-	-	-	
27	평등하다	5.0169	1.42412	-	-	-	
28	전문적이다	4.4124	1.55741	-	-	-	
29	믿음직스럽다	4.7557	1.41924	-	-	-	
30	결단성이 있다	4.4091	1.41935	-	-	-	
31	형식적이다	3.7006	1.61866	-	-	-	
32	합리적이다	4.4633	1.51510	-	-	-	
33	투명하다	4.7159	1.59606	-	-	-	
34	부유하다	3.6723	1.63588	-	-	-	
35	현실적이다	4.4520	1.55549	사교적이다	4.1783	3.9277	
36	자유롭다	4.2994	1.60456	사회적이다			
37	과학적이다	3.8927	1.60779	자유롭다			
38	사회적이다	4.3446	1.45379	민주적이다			
39	민주적이다	4.2655	1.49339	생산적이다			
40	사교적이다	4.1243	1.63635	명량하다			
41	미신(무속)적이다	3.3182	1.74713	재미있다			
42	생산적이다	3.9943	1.59462	현실적이다			
43	미래지향적이다	3.7771	1.64056	과학적이다			
44	명량하다	3.8475	1.55739	미래지향적이다			3.8400
45	재미있다	4.0508	1.77185	무섭다	3.2571		
46	무섭다	2.6497	1.46606	미신(무속)적이다			

〈 부록 2 〉 46개 특성용어의 산점도



## Abstract

# The study on buddhism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 on the analysis of propriety & likes and dislikes by character words -

Kwon, jeong-man (Chungnam National Univ.)

If application of images is not limited, 'Buddhism image' can be named by using character words. Analysis on Buddhism images followed by the naming work leads to elicitation of epistemic factors concerning Buddhism images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of Buddhism images depending on characters of responders.

There is no former study on buddhism images, so this study would aim to draw the epistemic factors by character words through borrowing the method of studies on images carried out by organizations(especially, enterprises). This can be applicated to study on Buddhism images that will be researched by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The aim of the study will be attained through the survey. Furthermore, to analyze the result of the study will help to establish an strategy for image management as well as to understand undergraduate awareness of Buddhism.

### ◎ Key word

Buddhism image, the character words for buddhism, factor analysis.

2009년 11월 18일 투고

2009년 12월 3일 심사완료